

삼풍사건의 지속적인 반성으로 건축환경 개선하자

Tragic Accident- "Sampoong" &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Architecture

鄭求殷/삼에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eong Gu-Eun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열악한 건축환경의 개선에 있다.

그러나 열악한 건축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 주어진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혁에 힘쓸 때 우리의 건축문화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악몽같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있는 지도 2개월여 지나고 그 충격의 여파가 잔잔해지면서 이제까지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뇌리속에서 점점 망각의 그늘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

삼풍사고 후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하여 졌을까? 수많은 국민과 건축인들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이 자성과 반성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그와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제는 진정 무엇인가 변해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기대하여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난날의 타성에 다시 젖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하고 양케이트나 조사하며 관계법규 몇몇 조항만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다면 이 엄청난 희생을 값진 경험으로 살려 우리의 건축풍토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삼풍사태가 비록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과 새로운 공법에 대한 미숙함과 아울러 부실한 시공과 관청의 눈가림식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총체적인 사회구조적 결함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매스컴의 보도에 일견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언론매체들도 생존자 구출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국민을 계도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그와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 국민의 의식을 안전불감증에서 깨우쳐 주길 바랬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흐려지고 말았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열악한 건축환경

경의 개선에 있다.

첫째,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가진자와 특권계층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모든 부조리의 씨앗이다. 또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법을 조변석개하여 특별조치법이다, 양성화다 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행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고 정당화시켜 준다면 공정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되고 최대한으로 법을 어긴 사람만 이익을 얻게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빨리빨리 적당주의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집권시기에 끝장을 보기위해 무엇이든 서둘러왔고, 그 여파로 사회 모든 분야 모든 국민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말았다. 설계, 시공, 감리 모든 분야에서 이와같은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한 제2의 삼풍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셋째, 기술자들의 장인정신의 결여에 원인이 있다.

기술자를 우대하여 주고 자부심을 길러주는 사회여야만 장인정신이 살아남고 계승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기능공들이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피땀흘려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잘살게 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인정신이 연연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붐과 함께 갑자기 인건비가 인상되고 잘살게 되니까 3D 업종이 기피되고 기능공 양성이 어려워지며 장인정신도 헤이해지고 말았다.

넷째, 적정공사비로 완벽한 시공을 하자.

현행 공사입찰제도로서는 최저가 낙찰로서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자재 사용과 하도급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또한, 일반 건축주들도 적정한 공사비에 완벽한 시

공을 요구하기 보다는 우선 남보다 싸게 공사를 맡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과당경쟁을 막고 적정한 공사비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축주, 설계, 시공, 감리 관청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건설현장에서의 기본이자 또한 최대의 관건이다. 각 분야의 적절한 조화만이 건축현장에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발주자인 건축주는 건축물이 개인의 소유임과 동시에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여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자는 건축의 조형예술 뿐만아니라 구조안전을 감안한 설계로 쾌적한 생활공간이 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공자는 자기기술 개발과 책임의식으로 내가 시공한 현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건설에 임할 때 부실공사는 추방될 것이다.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시공을 감독하여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관청의 의무와 역할 또한 지대하여 국민의 편에서 국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간소화하고 법집행에 일관성을 가지고 참다운 관리 조절 기능을 다할 때 건축풍토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건축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혁에 힘쓸 때 우리의 건축문화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삼풍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영령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